

“지자체 공공시설물 관리 일원화해야”

장흥, 24개 사업장 비전문직 운영 예산 낭비

도내 별도 운영 기구 지자체 22곳중 4곳 불과

일선 지자체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상 예산 낭비 등 폐단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관리부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군 산하 11개 실·과·소 주관하에 총 61건에 197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공공건축 시설물을 설치했

다.

최근 장흥군의회 사무감사에서 곽태수 의원은 군 산하 11개 실·과·소가 추진했던 61개 공공시설물 사업장 가운데 5분의2에 해당하는 9개 실·과·소의 24개 사업장이 비전문직 공무원이 사업을 주도하다가 설계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행정직과 복지직 공무

원이 주도한 청소년 수련원 건축공사의 경우 지난해 3월 1차 설계변경으로 1억3000만원, 올 5월에 2차 설계변경으로 1억1000만원, 7월에 3차 설계변경으로 1억30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사업비 추가로 인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이 누락되는 등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업무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종 시책사업

이 늘어나면서 일반 토목·건설공사는 전문직종인 토목직 공무원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나 총무·복지부서 등 행정직부서에서 비전문직들이 건축 시설물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현실과 다른 설계와 시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도내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는 지자체는 22개 가운데 순천(체육시설사업소), 고흥(문화관리사업소), 진도(시설물사업소), 장성(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지자체로 파악됐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읍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관 3일 강진군 강진읍에 자리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진읍교회(담임 목사 김승봉)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총 사업비 24억여원을 들여 2160㎡면적의 기념관을 신축했다. <강진군 제공>

나주, 전 공무원 대상 ‘정부 3.0...’ 주제 강연회

신원형 전남대 교수 초빙

나주시는 3일 “2일 12월 정례조회에서 신원형 전남대 교수는 초빙해 ‘정부 3.0 시민고객 성과창출을 위한 인문학’을 주제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정부 3.0을 주제로 한 3번째 전문가 특강으로 그동안 시는

‘빅데이터 활용기법’, ‘행정혁신과 성과관리’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신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공직환경과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도 인문학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서경영’으로 화제를 모은 ‘준오해어’ 강윤선 대표를 사례로 들며, 직원들의 꾸준한 독서로 얻어진 인문학적 감성을 통해 고객과 공감, 전국 92개 지점을 거느린 헤어숍으로의 성장 비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인문학적 소양은 나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융합적 사고와 창조성으로 이어져 사회에서 매우 소중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강진, 가로수 1000여그루에 해충 포집기 설치

강진군이 지난 2일 읍시가지와 등산로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 병해충 예방을 위해 후박나무, 뽕나무, 조형소나무 등 가로수 1000여 그루에 친환경 수목 해충 포집기를 설치했다.

해충 포집기는 겨울철 월동을 위해 따뜻한 곳으로 모이는 해충의 생태적

인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유인된 해충들을 봄철에 소각함으로써 박멸한다.

매년 5~7회 살포하고 있는 농약의 살포횟수를 줄이는 것과 같다.

특히 해충 포집기는 벗짚을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뿐만 아니라 미관상 파

뜻한 느낌으로 계절에 어울리는 거리환경 조성에 안성맞춤이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친환경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독성 농약 살포를 삼가고 친환경적인 병해충방제 제품을 설치하게 됐다”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전북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화장품 업체 다슬 첫 입주

북분자 농가 소득증대 기대

정읍시 신정동에 조성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다슬이 처음으로 입주했다.

정읍시, 전라북도, (주)다슬은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성기시장, 전북도 이상수 민생일자리본부장, 다슬 도현훈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사, 연구소, 공장 이전 등 50억원 규모의 이전투자 MOU를 체결했다.

(주)다슬은 현재 경기도 부천에 있는 기업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66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앞으로 50억원을 투자해 분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로 전부 이전, 모두 50여명을 고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다슬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의 이전으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등의 도움을 받아 정읍 일대의 북분자를 소재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 제품 전량을 미국과 일본시장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근 북분자 농가들의 소득증대도 기대된다.

다슬은 일본과 미국의 화장품회사 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20여 유통업체에서도 다슬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3.3㎢ 규모로 조성 중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는 현재 1단계로 89만3000여㎡가 조성돼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분양하고 있다.



구제역 방지 거점소독 시연회 남원시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초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일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거점소독을 시연하고 있다. 시연회에는 전라북도 축산과,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담당,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관했으며, 차량자동소독시설 2대, 동력분무기 3대 등 20여 점의 소독장비가 동원됐다. <남원시 제공>

전북 서남권 화장장 갈등 풀리나

조정자문위 중재에 김제시 곧 최종 입장 발표키로

전북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끌어온 시·군간 갈등이 조정자문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입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위원회)”는 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간 현장 방문과 여러 차례의 토론을 벌여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결정문을 통해 “김제시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 설치안과 관련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고 시설비용분담금에 대해서는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과 동등하게 (인구비례로) 분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제시는 화장시설 부지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부담해야 할 14억원 중 절반을 면제받아 그 예산을 금산면, 봉남면 등의 민원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 심병연 위원장은 “모든 시·군이 100%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데 힘썼다”면서 “무연·무취 화장로, 배출가스 자동정화 시스템,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가 거의 없는 만큼 참여 시·군이 원원차원에서 권고안을 따랐으면 한다”

고 피력했다.

하지만 김제시 관계자는 “봉남면 일부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효 수 없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제시가 이른 시간안에 시의 최종 입장을 내놓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정읍시와 고창·부안군 등 3개 시군이 공동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입지로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를 결정했지만 경계를 접하고 있는 김제시 금산·봉남면 등 마을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해 3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 신

남원, 산내면 지리산 체육공원 준공

남원시는 3일 “산내면 장항리 일원에 3109㎡ 규모의 지리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최근 준공됐다”고 밝혔다.

산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마련된 지리산체육공원에는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지난 11월 공사에 착공했다.

다용도 배구족구장, 파고라, 음수

대, 화장실, 산책로, 주차장, 운동시설 7종 등이 설치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에 지리산둘레길, 신선둘레길, 실상사 등이 있어 관광명소로도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고창군보건소, 공공보건사업 평가 ‘우수’

고창군 보건소가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전국보건소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축삭성장교실, 갱년기관리교실, 고위험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

로그램, 만성질환자 한방가정방문진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사업을 발굴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매주 월·수요일에는 한방허브 보건실을 찾는 주민에게 사상체질과 골밀도검사, 한방상담 등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 여성부 추진 여성친화도시 선정

남원시는 3일 “여성가족부가 시가 추진한 여성친화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골목길 CCTV 및 가로등 확충,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친화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산모·신생아 가정간호서비스, 쾌적한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시청사 내 모유수유실 조성,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 평등 기본 조례 제정 등을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북도, 쇠고기이력제 이행 평가 1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3년 쇠고기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에서 전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위를 차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

쇠고기이력제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한우·젖소 등 모든 소에 각

각의 번호를 부착해 사육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효율적인 방역과 쇠고기의 위생처리,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전력사용량 11% 줄여

내복입기 생활화 등 효과

순창군이 지난해에 비해 전력 사용량을 10분의1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군에 따르면 분청 전력사용량은 지난 8월말 현재 71만 4787kw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만1574kw보다 8.6%를 절감한데 이어 10월 말 현재 11.2%를 줄였다.

이는 군이 지난 2월부터 물품 및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과제를 설정하

고 전직원이 동참한 결과라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또 동절기에는 내복입기를 생활화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열냉난방시스템에 타이머를 부착,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했으며, 중식시간 소등, 컴퓨터 모니터 끄기,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오후 1시~5시) 사무실 1/2 소등 후 근무, 에어컨 28도 유지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연말 에너지 절약 우수 부서 및 읍면을 선정·표창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